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1, pp. 119-125, 2021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1.12.1.119

성인의 치과보험지식 및 구강건강지식이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에 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

윤성욱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Convergence effect of dental insurance knowledge and oral health knowledge of adults on dental health insurance recognition satisfaction

Sung-Uk Yoon
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성인의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이 치과보험인식만족도에 미치는 융합적 관계를 보고자 함이다. SPSS WIN 18.0로 분석해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p〈.05).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 '치과치료에 적용되는 진료과목의 수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가 높았으며 '치과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치료 진료비에 만족한다'가 낮았다. 치과보험유무지식은 치아미백, 교정치료, 구강건강지식은 '섭취하는 음식이 치아에 영향을 미친다.' 높았다.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는 민간치과보험을 가입한 경우 높았다.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는 치과건강보험지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총괄적으로 치과건강보험 인식 만족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구강보건지식, 성인, 치과보험지식,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 융합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d the convergence effect of dental insurance knowledge and oral health knowledge on dental insurance recognition satisfaction of adults. Dental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recognition, "Need expand the number of treatment subjects of dental treatment" was high, "satisfied cost of dental treatment covered by dental insurance" was low. Dental insurance knowledge was high teeth whitening, orthodontic treatment. Oral health knowledge was high, "the food you eat affects your teeth.". Dental health insurance recognition satisfaction was high when enrolled in private dental insurance. Dental health insurance recognition satisfac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ntal health insurance knowledge. Collectively in order to increase the dental health insurance recognition satisfaction, systematic education on dental insurance knowledge and oral health knowledge should be provided.

Key Words : Oral health knowledge. Adult, Dental insurance knowledge, Dental health insurance recognition satisfaction, Convergence effec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fund of Gimcheon University 2019.
*Corresponding Author : Sung-Uk Yoon(sunguk3794@naver.com)
Received November 11, 2020 Revised December 9, 2020
Accepted January 20,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1

1.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의료 정보에 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을 증진시켜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과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은 의료에 대한 수요를 계속 높아짐으로서 의료서비스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1]. 의료서비스 수준과 이에 대한 관심은 국민의 삶의 질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2].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이 건강보험부터 시작된다[3].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건강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1]. 우리나라는 1977년 국민건강보험을 도입 후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점차적으로 보장성 강화 및 확대실시하고 있다[4]. 그러나 치과영역은 의학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신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이유로 보장의 범위가 낮아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5]. 또한 치과영역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특성으로 본인부담금이 매우 높아 경제적인 문제로 치과 치료를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하였다[6]. 건강보험심평원은 2015년 외래 다빈도 상병 발생 순위에서 '치주질환' 2위, '치아우식증' 6위로 치과질환의 심각성을 보고하였으며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절대적인 의료보장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7].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와 급여확대는 치과부문에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8]. 기존의 비급여 진료였던 치면열구전색(2009), 노인틀니(2013), 예방적 치석제거(2013), 노인임플란트(2015), 12세 이하 어린이 복합레진충전(2018)에 대한 요양급여를 확대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노인틀니, 노인임플란트, 치면열구전색의 본인부담률을 더욱 완화하였다[7].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치과건강보험 확대실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잘 인지하지 못함으로 치과건강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9].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치과 건강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과 효과적인 제도적 변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치과건강보험 인식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치과건강보험인식에 관련된 연구[1,2], 스켈링 건강보험급여화에 관한 연구[10,11],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보험제도에 대한 연구[12,13], 민영치과건강보험에 관한 연구[6,7]가 이루어졌으나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이 치과건강보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을 조사하고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이 치과보험인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치과건강보험에 미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향후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를 효율적으로 높이고 치과건강보험제도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진행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GU-201910-HRa-18-03-P)을 받아 교비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1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수는 G*Power 3.1.3을 활용하여 Effect size (효과크기) 0.2, α=0.05, 검정력(1-β)=0.90에서 178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어 총 210부 중 설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9부를 제외한 201부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조사내용은 성인의 치과건강보험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치위생(학)과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20명 성인을 대상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 직업형태, 수입, 치과방문목적, 민간치과건강보험 유무의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은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관심, 필요성, 진료비에 대한 만족정도, 구강건강에 기여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와 이[1] 등과 한과 김[2]의 연구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8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Liker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건강보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치과보험지식은 치과의 대표적인 16질환 중 건강보험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박[7]의 연구도구를 참고하여 사용하였으며 16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구강건강지식은 치과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최[14]을 연구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표시하였으며 정답의 빈도수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치과보험지식, 구강건강지식은 빈도와 백분율로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 치과보험지식, 구강건강지식은 항목별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검증을 실시하였다.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와 치과보험지식 및 구강건강지식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분석하였다.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의 Cronbach's α=. 871로 조사되어 수용할만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는 201이며 성별은 여성이 107(53.3%)명이며 연령는 20대에서 50대 이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지는 특별시(광역시)는 97(48.5%)명, 시,군,구가 103(51.5%)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대학교 졸업이 78(39.0%)명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수입은 400천 만원 이상이 81(43.3%)명으로 높았다. 치과방문목적은 예방보다는 치료가 122(72.2%)명으로 높았다. 민간치과건강보험 유무는 '예' 93(46.5%), '아니오' 107(53.3%)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zation	Division	N	%
Gender	Male Female	107 94	53.5 46.5
Age	20-30 31-40 41-50 50(	53 55 41 52	26.4 27.4 20.4 25.9
Residence	Metropolitan city City,County, District	97 103	48.5 51.5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Professional college University	65 57 78	32.5 28.5 39.0
Employment	Student Yes No	34 136 29	32.5 28.5 39.0
Monthly income	≤300 thousand won 301-400 thousand won 400 thousand won(	60 46 81	32.1 24.6 43.3
Purpose of dental visit	Prevention Treatment	47 122	27.8 72.2
Private insurance	Yes No	93 107	46.5 53.5

3.2 연구대상자의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 치과보험지식, 구강건강지식

연구대상자의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평균은 3.09이며 '치과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이다', '치과치료에 적용되는 진료과목의 수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가 가장 높았으며 '평소 치과보험에 관심이 많다', '치과보험에 적용되는 진료과목 수에 만족한다'가가장 낮았다. 치과보험지식은 Table 3과 같이 치과진료 종류 중 보험의 유무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6문항 중 치아미백 174명, 교정치료 149명으로 정답자가 가장 높았으며 비보험 치과진료

Table 2. Dental health insurance awareness satisfaction

Dental health insurance awareness satisfaction	Mean(SD)	Standing
1. It is positive about usual dental insurance.	298(.86)	4
2. I am usually interested in dental insurance.	2.69(1.03)	7
3. They are satisfied with the medical level of treatment for which dental insurance is applied	2.73(.93)	5
4. I am satisfied with the number of medical subjects covered by dental insurance.	2.67(.99)	8
5. I am satisfied with dental care costs covered by dental insurance.	2.71(1.01)	6
6. Dental insurance is a necessary system.	3.37(1.07)	2
7.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number of treatment subjects covered in dental care	3.45(1.05)	1
8. Dental insurance contributes to public health promotion of the public.	3.11(.99)	3
Total Mean(SD)	3.07(.73)	

Table 3. Knowledge of dental insurance

word	N	Standing	word	N	Standing
1.Elderly dentures	107	9	9.Resin therapy	125	7
2.Common denture	116	8	10.Inlay Treatment	131	4
3.Jaw joint treatment	141	3	11.Elderly Implant	92	13
4.Periodontal (gum) treatment	95	12	12.Implant	104	11
5.Neurotherapy	129	6	13.Wisdom tooth extraction	71	14
6.Crown prosthetic treatment	110	10	14.Sealant	64	16
7.Scaling (once a year)	131	4	15.Orthodontic treatment	149	2
8.Amalgam treatment	70	15	16.Tooth whitening	174	1

Table 4. Teeth health knowledge

Teeth health knowledge	(N)	Standing
1. I know the cause of tooth decay.	152	5
2. The total number of teeth (permanent teeth) is 32, including wisdom teeth	144	6
3. Smoking makes oral health worse.	167	3
4. If you use a floss, there is a gap between your teeth.	95	8
5.Wiping the tongue when brushing is effective in preventing bad breath.	181	1
6.Fluoride helps prevent tooth decay.	167	3
7. Oral and systemic diseases are not related.	114	7
8. The food you eat has an effect on your teeth.	170	2
9.The occurrence of oral disease is the most genetic factor.	81	9

Table 5. Dental health insurance recognition, knowledge of dental insurance, teeth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ental health insurance awareness satisfaction Mean(SD)	p	Knowledge of dental insurance Mean(SD)	p	Teeth health knowledge Mean(SD)	p
Gender	Male Female	3.04(.71) 3.09(.75)	.663	9.09(2.00) 8.91(1.79)	.503	7.47(1.89) 7.23(1.66)	.383
Age	20-30 31-40 41-50 50〈	3.09(.64) 2.76(.73) 3.05(.70) 2.96(.83)	.090	8.26(2.25) 9.74(1.91) 8.85(1.54) 9.07(1.39)	.001**	7.28(2.02) 7.70(1.51) 7.56(1.39) 6.92(1.96)	.116
Residence	Metropolitan city City,County, District	3.14(.72) 3.01(.74)	.193	9.15(1.65) 8.86(2.10)	.280	7.24(1.77) 7.45(1.78)	.407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Professional college University	2.83(.64) 3.23(.74) 3.06(.78)	.110	8.80(1.97) 9.00(1.99) 9.15(1.77)	.542	7.61(1.82) 7.05(1.68) 7.37(1.79)	.219
Employment	Student Yes No	3.07(.66) 3.07(.76) 3.07(.71)	.999	8.23(2.27) 9.27(1.69) 8.72(2.10)	.011**	7.14(2.06) 7.36(1.70) 7.17(1.77)	.843
Monthly income	≤300 thousand won 301-400 thousand won 400 thousand won〈	3.05(.60) 3.05(.84) 3.10(.76)	.907	8.26(2.16) 8.86(1.73) 9.43(1.56)	.001**	7.33(1.91) 7.13(1.79) 7.40(1.68)	.701
Purpose of dental visit	Prevention Treatment	3.09(.70) 3.09(.71)	.986	9.04(2.05) 9.15(1.80)	.725	7.27(1.67) 7.48(1.72)	.482
Private insurance	Yes No	2.81(81) 3.14(.62)	.001	9.28(1.74) 8.77(1.81)	.046*	7.53(1.73) 7.24(1.65)	.238
Total Mean(SD)		3.07(.73)		9.00(1.89)		7.36(1.77)	

*p〈.05 **p〈.01

임을 잘 알고 있었다. 반면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64명, 아말감치료 70명으로 정답자가 가장 낮았으며 보험 치과진료임을 모르고 있음을 나타났다. 구강건강지식은 Table 4이며 9문항으로 '섭취하는 음식이 치아에 영향을 미친다.' 170명, '불소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 167명, '흡연은 구강건강에 나쁘다.' 167명으로 정답자가 가장 높았다. 반면 '구강질환 발생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 81명,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은 관계가 없다.' 114명으로 정답자가 낮았다.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 치과보험지식, 구강건강지식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8문항으로 평균은 5점 척도에서 3.07이며 남성이 3.09로 다소 높았으며, 연령은 40대가 3.14, 50대가 3.13으로 낮은 연령에 비해 높았다. 교육은 고졸에 비해 전문대졸과 대학교 졸업이 높았다. 직업은 학생, 직업의 유무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났다. 수입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민간치과보험 가입의 유무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 3.18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p<.05$). 치과보험지식의 16문항으로 평균 9.00이며 성별에서 여성이 9.09로 높았다. 연령은 30대 9.74로 유의성 있게 가장 높았다($p<.05$). 거주지는 특별시(광역시)가 9.15로 시군구에 비해 높았다, 교육은 큰 차이가 없었다. 직업은 있는 경우 9.27로 학생이나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p<.05$). 수입은 높은 경우가 9.43으로 낮은 경우보다 높았다($p<.05$). 치과방문목적은 예방과 치료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민간치과보험가입은 가입한 경우 9.28로 높았다($p<.05$). 구강건강지식은 9문항으로 평균은 7.36으로 성별은 여성이 다소 높았다. 연령은 30대가 7.70으로 높았으며 50대 이상이 6.92로 낮았다. 거주지는 시군구가 다소 높았으며 교육은 고졸이 다소 높았다. 직업과 수입, 치과방문목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민간치과보험은 가입한 경우 7.53으로 높았다.

3.4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 치과보험지식, 구강건강지식의 상관관계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 치과보험지식, 구강건강지식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6이며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는 치과건강보험지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p<.05$),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p<.05$). 즉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가 높을수록 치과보험지식이 높고, 치과보험지식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지식이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6. Correlation of dental health insurance recognition, knowledge of dental health insurance, teeth health knowledge

Division	Dental health insurance awareness satisfaction	Knowledge of dental health insurance
Knowledge of dental health insurance	.206(.003)***	1
Teeth health knowledge	.016(.201)	311(.000)***

$p<.05$ ** $p<.01$ *** $p<.001$

4. 고찰 및 결론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과 의료위험을 줄여주는 사회보험으로서 보험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감으로서 보장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15]. 이와 더불어 치과건강보험도 2001년 7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이후 시행된 예방적인 전악 스케일링 급여화, 2009년 12월부터 시행된 치면열구전색 급여화, 노인틀니, 노인임플란트의 급여화 등 점차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10]. 이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 변화하는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여 치과건강보험의 올바른 활용도를 높이고 치과보험제도의 효과적 방안 모색을 위해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이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에 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세 성인 201명의 일반적인 특성 가운데 민간보험 가입자는 46.5%로 나타났다. 박[7]은 46.0%, 김과 김 외[6]는 61.7%가 민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치과건강보험 외에도 민간치과보험도 가입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경제적인 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치과건강보험이 구강건강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향후 이를 위해 치과건강보험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 평균은 5점 척도에서 3.07이며 '치과치료에 적용되는 진료과목의 수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가 3.45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보험에 적용되는 진료과목 수에 만족한다.'가 2.67로 가장 낮았다. 이와 이[1]외의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의 평균은 2.93이며

'적용되는 진료항목 조건.'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치과건강보험 급여 경험.'이 가장 낮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치과보험이 적용된 치과치료 진료비 만족도' 2.71, 이와 이[1]의 '경제적 불안 감소' 2.63으로 치과진료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평균보다 낮게 분석되어 치과진료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치과진료는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상당히 부담됨으로 이를 점차적으로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치료항목 중 보험적용 유무에 대한 지식도를 알기위한 치과보험지식은 16문항 평균 9.00이며 치아미백, 교정치료, 턱관절 치료, 예방적 스케일링(년1회 적용)은 치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반면 치면열구전색이 64명, 아말감 치료(은색치료) 70명, 사랑니 발치 71명만이 정답자로서 이들 치료가 보험 적용치료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는 결과는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치면열구전색은 소아청소년이 많이 하는 치료로서 일부 치아에 보험적용 2009년부터 실시된 것이며, 아말감은 수은과 심미적이지 못하여 점차 줄고 있는 추세지만[16] 보험적용이 처음부터 되었던 치과치료이며, 사랑니 발치는 복잡한 발치인 경우는 비용이 다른 발치에 비해 많이 들지만 보험적용이 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적용 치료라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치과보험에 대한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치과치료에 대한 접근성과 올바른 지식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건강지식은 평균 9문항 중 '칫솔질 시 혀를 닦는 것이 구취예방에 효과가 있다.', 섭취하는 음식이 치아에 영향을 미친다.'가 가장 높았으며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은 관계가 없다.'와 '구강질환은 발생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윤과 장[17]은 '칫솔질 시 혀를 닦는 것이 구취예방에 효과가 있다.'가 가장 높았고,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은 관계가 없다.'가 가장 낮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박과 류[18]은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일반 국민들은 치과질환은 전신질환과 상관성이 없다고 인식하여 전신질환보다 구강질환을 소홀히 경향이 있다고 사료되며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전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사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는 민간치과건강보험가입 유무에서 가입한 경우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양과 최[19]는 국민건강보험에 만족한 경우,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 민간치과건강보험 인식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국민건강보험으로 본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료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함을 느끼기 때문에 민간치과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사료되면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확대가 필요함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치과보험지식은 연령, 직업, 수입, 민간건강보험가입 유무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연령은 30대와 50대가 높았으며 20대가 가장 낮았다. 이와 염[20]외는 치주질환이 30대에서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50대까지 계속 늘어나며 60대 이상이 되면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20대보다는 치주질환이 높아지는 30대부터 치과방문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치과보험지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은 있는 경우 치과보험지식이 가장 높았고 학생이 가장 낮았다. 직업이 있는 경우의 연령대는 보통 학교 졸업 후 대상자이기 때문에 연령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즉 연령이 높은 직업이 있는 경우 치과보험지식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수입은 많을수록 치과보험지식이 높았다. 이와 이[1]는 치과보험인식이은 수입이 많을수록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수입이 높은 즉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가 높은 경우 치과건강보험지식도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건강보험은 가입한 경우 치과보험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7]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민간치과보험 가입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치과보험지식이 높은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 치과보험지식, 구강건강지식의 상관분석 결과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가 높을수록 치과보험지식이 높고 치과보험지식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지식이 높다고 나타났다. 즉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를 높이가 위해서는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이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에 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치과보험지식과 구강건강지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치과건강보험제도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한 점에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20대 성인들의 치과건강보험인식만족도에게 미치는 다양한 변수 특히 전신잘환과 다양한 직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지 못한 점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설문한 내용으로 일반화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

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재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K. H. Lee, S. B. Lee, E. Y. Jung, E B. Jo & E. S. Jung. (2018). Factors influencing awareness of dental health insurance among adults, *J Korean Soc Dent Hyg, 18(5),* 157-164, 2018.
DOI : 10.13065/jksdh.2018.18.05.157

[2] J. H. Han & Y. S. Kim. (2008). A Study on Awareness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8(2),* 65-71.

[3] H. S. Kim. (2000). Medical service and health insurance of Sweden. *EU Research ,7,* 119-148.

[4] O. J. Ju, E. J. Kang, S. H. Woo, A.J. Lee, H. J. Lee & M. H. Park. (2014). Recognition between layperson and dental hygienists on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of scaling. *J Korean Soc Dent Hyg, 14(3),* 431-438.
DOI : 10.13065/JKSDH.2014.14.03.431

[5] J. H. Han & J. Kim. (2003). Client services evaluation in dentistry sector. *J Korean Soc Dent Hyg, 3(2),* 209-20.

[6] Y. G. Kim, E. J. Kim, S. H. Nho, E. J. Baek, M. S. Shin & S. J. Hwang. (2015). Some Adults' Opinions about Private Dental Insurance and National Dental Insurance according to Stress of Dental Treatment Cost, *J Dent Hyg Sci, 15(6),* 703-711.
DOI : 10.17135/jdhs.2015.15.6.703

[7] G. B. Park. (2018). *Perception and usage of dental c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status of buying private dental insurance,*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 B. G. Lee & J. H. Lee. (2016). Recognition and atisfaction of dental care customers after 1 yea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al scaling. *J Korean Soc Dent Hyg, 16(2),* 185-93.
DOI : 10.13065/jksdh.2016.16.02.185

[9] H. L. Moon. (2013). *A survey on health insurance claims and knowledge by the hygienist in Jeollabuk-do,*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10] B. G. Lee & J. H. Lee. (2016).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dental care customers after 1 yea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al scaling, *J Korean Soc Dent Hyg, 16(2),* 185-193.

[11] M. J. Jun. (2018). The convergence study of scaling insurance coverage in socioeconomic, oral health behaviors Medical consumer. *J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125-136.
DOI : 10.15207/JKCS.2018.9.2.125

[12] H. G. Ryu. (2016). Knowledge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in the dental hygienists: based on the elderly denture, *J Korean Soc Dent Hyg, 16(1),* 61-67.
DOI : 10.13065/jksdh.2016.16.01.61

[13] J. R. Park, M. S. Youn & Y. R. Choi. (2018). Convergence study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elderly of awareness of middle-aged people and demand for dental services in the system. *J Korea Convergence Society, 9(7),* 95-103.
DOI : 10.15207/JKCS.2018.9.7.095

[14] B. K. Choi. (2016). *Factors of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Influencing Health State,* master's thesis, Gongju University.

[15] S. L. Ha. (2008). Policy Issues on the Limited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J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22-38.

[16] K. H. Shin, J. Y. Yang, H. K. Kwon & D. C. Shin. (2007). Dental Hygienists' Knowledge on Dental Amalgam Mercury and Its Treatment Practice, *J Environ Toxicol, 22(3),* 247-254.

[17] S. U. Yoon & S. J. Jang. (2016).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university students in some areas, *J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1-8.

[18] M. S. Park & S. A. Ryu. (2010). Degree of Dry Mouth and Factors Influencing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for Community-Dwelling Elders. *J Korean Acad Nurs, 40(5),* 747-755.
DOI : 10.4040/jkan.2010.40.5.747

[19] D. N. Yang, I. Y. Choi, K. J. Kim & Y. D. Kwon. (2013). Awareness and Purchase of the Private Dental Insurance among Dental Patients in the Capital Region, *J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7),* 322-332.

DOI : 10.5392/JKCA.2013.13.07.322

[20] Y. S. Lee, C. Y. Yun, S. M. Kim, B. O. Kim & K. Y. Han. (2001). Investigation of Age and Treatment Modalities in the Periodontally Treated(1981-1995) Patients. *J Korea Academy of Periodontology 31(1),* 225-231.

윤 성 욱(Sung-Uk Yoon) [정회원]

· 2003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위생과학과(보건학석사)
· 2013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진료지원 융합, 보건행정 융합, 기타 의과학 관련
· E-Mail : sunguk3794@naver.com